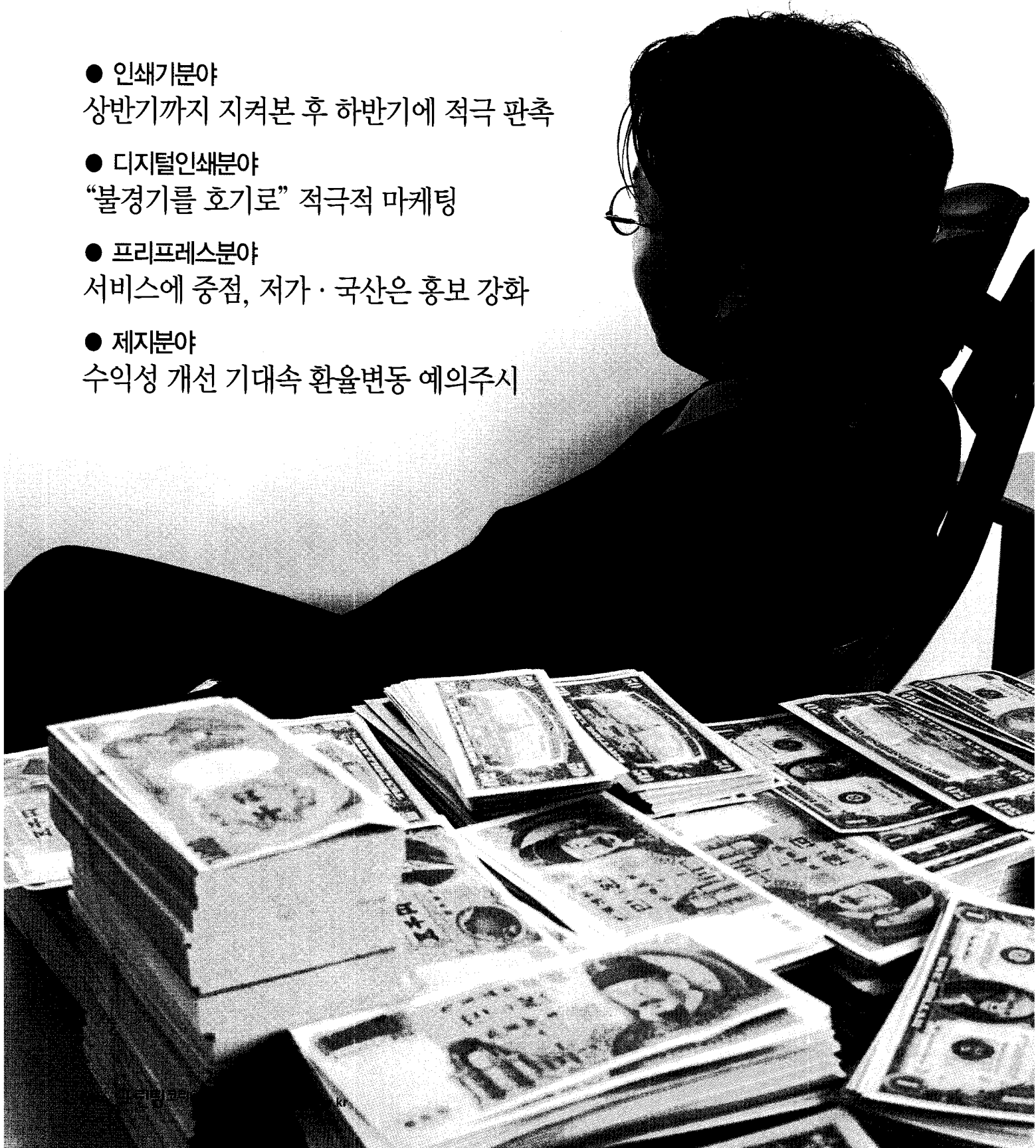


# 고환율시대 인쇄기기 공급업체들은 ...

- 인쇄기분야  
상반기까지 지켜본 후 하반기에 적극 판촉
- 디지털인쇄분야  
“불경기를 호기로” 적극적 마케팅
- 프리프레스분야  
서비스에 중점, 저가·국산은 홍보 강화
- 제지분야  
수익성 개선 기대속 환율변동 예의주시



환율이 급등한 지난해에 이어 해가 바뀔 2009년에도 외환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닥쳐오면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리 수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는가 하면 지난해 4/4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정된다는 주장과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려를 더하는 것은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에 달러화 및 엔화, 유로화 등의 주요 통화들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최소 30%~100%에 가깝게 급격한 하락을 기록한 만큼 더 이상 대폭적인 하락을 보일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유동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희망 섞인 전망대로 환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최상의 결과이지만 연초부터 환율은 기대와 달리 1300~1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쇄업계와 관련업계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는 환율변동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전력을 기울이며 대응 방안이 골몰하고 있다. 인쇄업계와 관련 업계가 부문별로 처한 상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긴박감이나 대응강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올 한 해 동안의 경영에 환율 부문은 큰 영향을 줄 것만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과 관련된 업계의 대응과 마케팅에 대해 알아본다.

### 2009년에도 초미의 관심사는 환율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환율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 연말과 1월초까지는 1300~1400원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하반기에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1000~1100원에 안착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런 전망에 대한 배경에는 연초에는 글로벌 위기로 인해 불안정한 면이 부각되면서 환율변동성이 다시 높아지지만 1400~1500원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후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외화유동성 사정이 다소 개선되면서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9년에는 지난해와 달리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유가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수입 비용 감소,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로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단,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회복이 늦어지면 외환 자금수급 개선도 늦춰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비중이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인가도 전체적인 외환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4월로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왑의 연장 및 추가 인출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 가하는 문제도 상반기 환율의 움직임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국내 변수로는 국내 은행 차입금의 만기 연장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거리다. 외부적으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구세화하면서 보호무역 기조를 보일 지에 대한 우려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다수의 전망이 1100~1500원선에서 환율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해가 바뀌면서 2%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등 예상 밖의 악재로 말미암아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 인쇄업계에 미친 환율 급등의 영향

인쇄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도 지난해에 요동치는 환율로 인해 대부분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어떤 부문이라고 할 것 없이 예외 없는 충격을 받았으나 아무래도 인쇄기계의 수입, 판매사들에게 가해진 부담은 두드러졌다. 달러화, 엔화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환율의 상승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대부분 결제 기준 환율을 추가로 조정하기도 했으나 100%반영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부업체들은 판매 수익의 악화 수준이 아니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역마진'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인쇄기계와 관련 소모품을 구입, 소비하는 인쇄업계의 사정도 어렵기는 비슷한 처지였다. 우선 원화로 표시되는 구입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판매업체에서 일부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는 했지만 크게 오르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거기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자재, 소모품의 가격도 덩달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설비의 교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운용비용의 증가로 가뜩이나 악화된 수익성의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 왔다.

이처럼 구매와 운용측면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한 것에 못지 않게 매출 부문에서의 타격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반적인 경기의 후퇴로 인해 인쇄물 수요의 감소세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인쇄업계의 입장에서는 가격인상을 취할 수도 없고 구매 단가를 절감할 수도 없는 등 실질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물론 2009년에는 지난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큰 폭의 환율 변동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으며 수입 기준 환율의 재조정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업체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회복을 경험했던 업체들은 어렵기는 하더라도 지금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이를 경영 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일부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은  
인쇄업계 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 조용한 가운데 실속 위주로 마케팅 펼쳐

인쇄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환율 전망도 경제 연구소와 환율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은 환율 전망과 대책을 갖고 있다. 다수의 업체들이 연 평균 1200~1300원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1400원 이상으로 고공 행진을 계속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는 또다시 급등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기업 및 대형업체들도 연초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기 보다는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환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적합한 대책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최근 공세적인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 A사 등 일부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위기는 기회”라는 인식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인쇄업체 및 관련업체들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용한 마케팅을 준비하거나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쇄기계 수입업체인 B사의 경우, 구매 고객을 위해 일정한 가격 할인과 일정 비율로 소모품을 무상 지원해 오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인 홍보는 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불경기에 요란한 마케팅을 하기 보다는 실속 있는 지원을 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구매 고객에게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B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쇄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업체들도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일괄적인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일부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은 인쇄업계 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하다.

### 업계별 마케팅 전략

#### 제지업계 - 펄프가격 하락으로 어려움 덜어

제지업계도 지난해에는 펄프가격의 상승과 환율의 급등으로 어려움이 컸으나 펄프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2009년에는 경영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펄프가격 하락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호전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지업계는 수출 비중이 높아 원화의 약세가 수출 확대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제지업체들은 상반기 중에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지난해 대규모 인수합병이 여러 건 진



행 되었고 올해는 이를 잘 마무리하고 내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집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쇄 관련 업계 가운데 외부적인 여건이 가장 나은 것으로 보이는 제지업계이지만 대외적인 여러 변수들의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공격적인 마케팅보다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가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따라 여러 제지 업체들은 하반기의 경영기조는 상반기의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쇄기계 부문 - 글로벌 불경기, 환율 등 타격으로 방어적 경영**

실질적으로 환율 급등으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안았던 인쇄기계 수입 및 판매업체들은 해가 바뀌었지만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라간 환율에 대한 적응도 되었다지만 고객사들의 구매 움직임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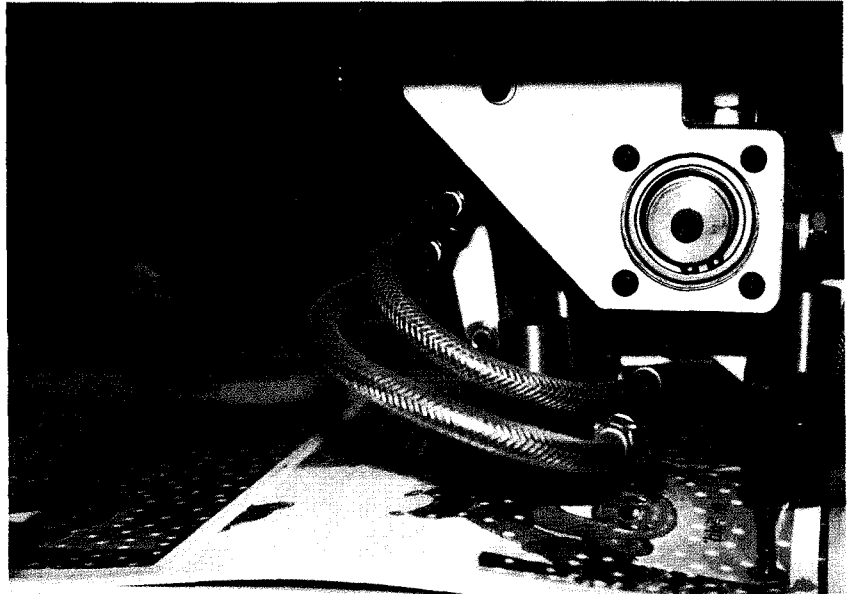
이에 따라 대다수의 업체들은 신제품의 출시보다는 비용의 절감에 중점을 둔 긴축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실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지난해의 충격으로부터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의 환율 수준으로는 적절한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판매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고 최소한 2009년 상반기에는 관망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업체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인쇄기 부문에서는 불경기에 관계없이 시장 점유율 제고와 판매 확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염려되는 점은 경기 둔화로 인해 신규 판매의 둔화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점이다. 현재 디지털인쇄기는 대기업들의 각축장인 동시에 각 장비의 경쟁력이 쉽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때문이어서 예상이상으로 신규 시장의 축소가 커질 경우에는 디지털인쇄기계 판매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후가공기계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업체들이 환율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후광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기술력이 뒷받침된 업체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자리 수 이상의 매출액과 판매대수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프레스 부문 - 업체별로 명암이 엇갈린 가운데 대책 수립 골몰**

CTP시스템의 판매는 인쇄기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하고 급격한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2009년 상반기 중으로 판매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CTP 시스템 판매업체 대부분은 신제품 또는 신 모델의 출시와 판매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재의 경우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환율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국산 판재 생산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CTP시스템은 장비 가격의 상승에 따라 판재 등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대 고객 마케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한 애프터서비스의 수준 향상 등 비가격적인 면에서의 경쟁이 그 중요성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CTP전문 출력소들도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주도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을 펼쳐 왔으나 2009년에는 비용적인 면과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업계 부문 - 인쇄물 시장 감소 등 악재 많아**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쇄물 수출업체는 꼭 그렇지도 못한 실정이다.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수출 시장인 선진국의 경기후퇴와 시장 축소가 예상보다 크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경제의 후퇴와 함께 투자심리까지 얼어붙어 주요 선진국의 인쇄물 수요 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 인쇄시장도 불경기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쇄업계는 2009년에도 감량경영과 긴축경영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혹독한 불경기를 이겨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